

한반도 결의안(Re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NFORMATION

Document GEN 03 APX 02

2016 년 제 21 차 세계감리교협의회(WMC)에서 한국감리교회(KMC), 연합감리교회(UMC), 세계감리교협의회(WMC)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2017 년 서울, 2018 년 애틀랜타,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 년 서울에서 지역 평화 구축을 위한 감리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어 2024 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제 22 차 세계감리교대회에서는 평화에 헌신하는 청년들을 포함한 대표들과 참가자들이 감리교인들의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 '한국 평화의 밤'을 개최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 증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식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1953 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려는 남북한 기독교인의 오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반도 주변의 최근 정세는 점증하는 대결과 군비 증강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군사적 충돌의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1950 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오래되고 낡은 냉전의 유산은 79 년간의 분단 체제를 규정하며, 남북한에서 끊임없이 불의와 억압,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남한과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군비 경쟁과 긴장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감리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회원 교회와 기관들에게 한반도의 평화, 통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cumenical Forum for Peace, Reunific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FK)과 남북한 교회의, 전쟁을 종식하고 1953 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 Campaign)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협정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핵화와 남북한 모두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 8 월 15 일 전 주일을 한국 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기도주일(Sunday of Prayer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로 지키며 기도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신뢰를 구축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채택: 2024 년 8 월 14 일